

TV 전도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



가정의 TV는 무게중심이 앞으로로부터 20~30%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TV 위에 있는 장난감 등을 잡기 위해 TV에 오를 경우 TV가 앞으로 넘어져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.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무겁고 부피가 큰 TV가 넘어지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기 쉽다.

지난해 발생한 TV 전도 안전사고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, 1~5세가 97.7%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, 위험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.

TV 크기별로는 29인치가 33.4%로 가장 많았고, 35인치가 25% 등 대형 TV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, 잡아당겨서 발생하는 경우가 66.7%, 밀어서 발생하는 경우는 25%였다. 어린이가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것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달지 말고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.

<안전사고 예방>

- ◎ TV 받침은 미끄럽지 않게 안전한 조치를 취할 것
- ◎ TV 앞쪽 끝이 장식장 등 설치대 밖으로 나오지 않게 설치하고 가능한 한 뒤쪽으로 밀어 놓을 것
- ◎ 서랍이 있는 TV 설치대는 어린이들이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말 것
- ◎ TV는 볼트나 클램프를 이용해 벽에 고정시킬 것
- ◎ 어린이가 TV에 올라서거나 잡아당기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여 보살필 것
- ◎ 장난감이나 리모콘 등을 잡기 위해 TV에 매달리거나 올라갈 수 있으므로 TV 위에 물건을 올려 놓지 말 것 